예수이름 갖는 법

(행3:1~10)

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이름 갖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 가사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이.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런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늘 주목할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그 '내게 있는 것', 은과 금 대신에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돼서 40년 동안을 살던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걷고 뛰고 하게 됩니다, 40살이라는 것은 뒷부분 4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부분은 바로 이거에요.
예수님 이름을 갖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금과 은 대신에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게 많잖아요, 금과 은, 이런 돈을 갖는 것이고 또 학벌, 그것도 내가 갖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맥,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없이 뭐 권력도 안 갖고 있고, 지위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게 예수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줍니다.
예수님 이름을 줄 때,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앉은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날 걷게 됩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 이름을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의 노력을 주고 우리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주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줄 때,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에게는 발목과 다리에 힘으로 주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줄 때에 어떤 다른 내용들이 주어질 수가 있겠지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전 생애가, 요한의 전 생애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갖고 있었고, 그 이름을 주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른 것들이 주어졌겠지요.

자, 예수님 이름을 갖기! 도대체 이름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삶에서 경험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다 우리가 이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갖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금 박 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 유난히도 장관 임명이 시끄러워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가지고 장관 임명이 시끄러운데, 그 뉴스에 가끔 보면 청와대에서 박 근혜 대통령이 비서관들이 쭉~ 서 있는 가운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이다, 외교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장관으로 임명된 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임명장에 보면, 이름 쓰고 '아무개 아무개를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함' 하고 밑에 '대한민국 대통령 박 근혜' 하고 직인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박 근혜라는 이름을 천 번 만 번 불러도 박 근혜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박 근혜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박 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이 나와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부장님이 과장님과 밑에 직원들을 다 데리고 회식을 갔습니다.
잘 먹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할 때에요.
이때 부장님이 김 과장한테 카드를 꺼내 줍니다, 부장님의 카드를 꺼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장님의 카드를 갖고 가서 회식비, 예를 들면 70만원을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부장님의 이름이 쓰인 신용카드에서, 부장님의 재력이 그 신용카드를 통해 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쥐고, 그 이름에 해당 되는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김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내 신용카드를 아내에게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가 장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의 신용카드를 갖는 거, 이름을 갖는 겁니다.
이처럼, 이름을 갖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름이 나타내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권세가,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흘러 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름을 갖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 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다스리는 일인데, 국방이다 외교다 문교다 문화관광부다, 다~ 박 근혜 대통령의 일이거든요? 박 근혜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해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서 할당해 줍니다.
그러니까 박 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자기가 맡은 부서가 만약에 외교통상부다 그러면, 외교부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의 예수님이 관할을 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권한을 부여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유와 예수님이 관할해야 될 영역이 얼마큼입니까?
온 세상이 다에요.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부분이 있고, 그 맡겨 주신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한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임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로 만든 임명장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를 쥐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갖듯이, 그렇게 임명장을 갖는 게 예수님 이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름을 갖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권한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에게 있는 것들이 나에게 할당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가리키는 그분의 권한과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분이 해야 될 일 중의 어떤 것들을 내가 행해야 될 때에, 예수 이름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의미의 예수님 이름 갖기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일어납니까?
어떻게 내가 실제로 예수님 이름을 갖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측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박 근혜 대통령이 장관들을 부를 때, 당신의 측근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으로 부른 것을 수락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의 측근이 되겠다고 하는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측근이 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박 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역할을 아무한테나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자기를 믿을 수 있어서 자기의 최측근이 되는 사람들에게 비서직을 임명하고, 장관직을 임명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박 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갖고, 대통령의 권세에 의해서 자기에게 할당 된 부분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측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이 뭡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무지하게 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수님과 친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길은 외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사건은 2000년 전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측근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건 뭐에 대해 죽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래야 측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는, 나의 가족도 들어 있고, 내 인생의 미래도 들어 있고, 나의 비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세상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지 않겠다고 하고 할 때,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는 마음이 무조건 주님을 따라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제 구름 위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에요.
이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구름 아래에 대해 죽었고, 구름 위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구름 위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구름 위에 하늘나라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주님이 머물고 계신 그 곳에서만 내 마음의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사람들이 교인으로 규합이 됩니다, 교인이 돼서 교회 안으로 영입이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온전히 기도에만 힘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측근이 되는 길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날의 나의 사건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쁨거리, 만족거리를 찾지 않아요.
어떤 일이 미해결 상태가 돼서 걱정이 되다가도,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그 일이 해결이 되던 안 되던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내 기쁨과 만족이 결정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측근이 뭡니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깝고, 이 세상에서 가족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깝고, 이 세상에서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더 가까워서, 내 마음이 느끼는 기쁨은 예수님에게서 결정되는 겁니다.
가족 이전에, 돈과 금 이전에, 사업 이전에, 내 몸 상태 이전에 예수님에게서 결정되는 게 예수님의 측근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측근이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측근이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온전한 예수님의 측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에게 항시 존재하는 어떤 기질을 발견해서는 안돼요.
항상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순간 결정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행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사업가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측근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사업가로서 사업가이기 전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owner이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면서 사업에 대해 죽어야 돼요.
사업에 대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사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구름 위에 게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끝내는 겁니다, 기도시간 속에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강을 찾았을 때, 눈 뜨고 사업장에 갈 때에, 이제 그 사업장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에서 나의 기쁨을 얻는 것이 죽어서, 이미 구름 위에 있는 주님과 하나님으로 기쁨이 되고 그분의 측근이 되었을 그때, 예수님 그분이 내게 당신의 이름을 주심으로써,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 위치에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사업에 대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게 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예수이름을 준다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지혜와 계획이 나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사업에게 예수 이름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금과 은이 꼭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재산을 팔아 가지고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점심이라도 사 먹어야 되고 저녁이라도 사 먹어야 되면, 거마비라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가룟유다가 헌금 궤를 맡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주머니에 금과 은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금과 은에 대해서도, 그 금과 은이 성전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가 되는 거예요.
금과 은에 대해서도 예수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이 이 세상에서 내 소유로 돼있다고 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금과 은에도 예수님의 통치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주머니에 들어 온 금과 은이라도, 내가 그 금과 은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므로, 금과 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구름 위에서 만족하고 기뻐질 때에 예수님 이름이 내게 주어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볼 때, 내 소유로 주어져 있는 금과 은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통치권이 나를 통해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 주머니에 있는 금과 은에 대해서 통치권을 발동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접어두셨다는 뜻이에요.
앉은뱅이에게 향해서 통치권을 발동하실 때, 그 발목과 그 다리에 힘이 생기게끔 하는 능력으로 통치권을 발동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엄밀하게 말하면, '금과 은을 내가 너한테 지금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를 향한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지시 하시기를, 금과 은을 주지 말고 저 앉은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저 다리와 발목에 힘을 주라고 하시니, 나는 너한테 지금 금과 은을 주지 않는다, 대신 내게 있는 예수 이름 안에서 너의 발목과 다리에 힘이 생기는 그런 능

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임명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돈이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명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임명장을 받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물건,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의 통치권에서 할당 받은 임명장으로 우리가 마주 대할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 갖기.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야 됩니다.
측근이 되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일 가까워서, 그게 측근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의 기쁨과 만족이 끝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주실 때, 내가 만나는 상황, 내가 만나는 물건,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을 향한 예수님의 통치권과 권한과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예수 이름을 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 측근이 되고, 예수님 이름을 갖고, 예수님 이름을 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떡하든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측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